

건설현장 ‘일터 지킴이’ 뜯다…추락사고 사라질까

산업안전공단, 730명 투입…건설·제조·조선 현장 안전 점검
영암 대불산단 등 추락사 현장 대응…지붕·위험 작업 순찰도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등지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광주일보 2025년 8월 12일 6면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추락사 예방 전담 조직을 꾸리고 나섰다.

공단은 올해 전국 730명 규모로 ‘건설현장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을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일선 공사 현장에 투입돼 안전 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추락 위험은 없는지 등 여부를 살피는 전문 점검 조직이다.

광주·전남 지역 산업 현장에서는 채용형 50명, 위촉형 16명의 일터 지킴이가 점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채용형은 3가지 종류로, 건설업 지킴이는 광주 20명, 전남 16명이며, 제조업 지킴이는 광주 4명, 전남 2명이다. 조선업 지킴이는 전남에서만 8명 활동한다.

위촉형 지킴이는 광주 8명(건설 6명·제조 2명), 전남 8명(건설 4명·제조 1명·조선 3명)이다.

일터 지킴이는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이 중 ‘일반 지킴이’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붕 지킴이’의 경우, 떨어질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추락사고를 막기 위

한 집중 점검을 하는 등 고강도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치는 이들이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공사 전 착공 신고 없이 지붕 개·보수 작업을 하거나 태양광을 설치·해제하는 등 위험한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붕 지킴이는 측사, 산업단지 등을 살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형 올데이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 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개선하는 순찰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머무르며 위험 요소를 제거하게 된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과 지붕을 소유·임차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위험요소가 발견될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총 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재정 지원을 받도록 했다. 위험 요소가 발견될 시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채광창 안전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등 6개 안전품목을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의 최대 90%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장 한 곳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최근 영암 대불산단 등지에서 작업자들이 안전 장치 미비로 잇따라 추락 사고를 당하자, 대응 차원에서 일터 지킴이를 조직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영암 대불산단의 선박용 철판 가공업체에서는 크레인 수리 작업을 하던 50대 현장소장이 크레인 상부에서 고장난 설비를 수리하던 중 8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같은 해 8월 7일에는 대불산단 내 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밟고 있던 채광창

(선라이트)이 깨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1월 17~18일에도 이를 연속으로 지붕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추락사했다.

일각에서는 일터 지킴이 활동을 개시한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속 제도를 도입하거나 점검 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점검 이후 어떻게 보고가 이뤄지고 대응할 것인지, 무엇을 점검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위촉형 지킴이의 경우 점검반이 개인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라 면밀한 점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에 최대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며 “지킴이가 빈틈없는 순찰을 하고 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봄은 꽃집에 먼저 오네 물가 상승과 난방비 부담 증가로 화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9일 광주시 서구 품암동 광주원에농협 화훼공판장에 경매를 마친形形色색의 꽃들이 가득 진열돼 있다. /김진아 기자 jeans@kwangju.co.kr

“이주여성 인권 어디 갔나”

전남 여성·인권단체, 오늘 김희수 진도군수 규탄 집회

전남 지역 여성·인권단체가 김희수 진도군수의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는 10일 오후 2시 진도 군청 앞에서 ‘진도군수 차별 발언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공식 석상에서 ‘베트남·스리랑카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는 말이 생중계됐다”며 “말실수가 아니라 여성과 이주여성을 인구·결혼정책의 도구로 보는 구조적 성차별이자 여성혐오,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의 언어는 사회의 기준이 된다. 해당 발언은 지역 여성과 이주여성에게 차별과 불안을

안겼다”며 “이주여성의 존엄을 짓밟는 차별적 발언을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남 지역 공론장에서 반박된 성·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 연명도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 4일 김 군수는 해남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소멸 대책을 언급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인권익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봄 재촉하는 비…겨울 끝자락 눈

광주·전남 내일까지 5~10mm

추위가 한 풀 꺾인 광주·전남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부터 11일 오전 사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10mm다. 특히 광주와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지표면 온도가 낮아 비가 내리는 즉시 얼어붙는 ‘어는 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져 평년(최저 영하5~0도,

낮 최고 4~8도)과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날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1도, 낮 최고기온은 6~8도에 머무르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0~3도, 낮 최고기온은 7~11까지 오르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1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가 예상되고, 13일은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구례·보성·여수·광양·순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0일 내리는 비로 건조특보는 일부 해제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경찰, 18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가동

범죄·사고 취약 요소 점검 등

경찰청이 설 명절 기간 범죄 예방과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특별치안대책을 가동한다.

경찰청은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귀성·귀경과 가족 모임이 집중, 치안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지역경찰 5만명과 기동순찰대 2000명, 기동대 2480명 등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범죄·사고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연휴 전까지 개

선할 계획도 세웠다.

기동순찰대는 팀별로 ‘관계성 범죄 대응’, ‘주취 폭력 예방’ 등 전담 임무를 부여받아 운영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에는 기차역·터미널 등 인파 밀집 지역 중심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 대응한다.

명절 기간 증가하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 가정과 고위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시기별 이동·교통량 변화에 맞춰 단계별 교통관리도 실시한다. 산불 발생 현장 지원과 지역 축제 등 다중운집 장소 인파 관리에 나서고,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총기류는 13일부터 19일까지 출고를 금지한다. /윤준명 기자 yoon@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이
기
원
단
상
에
세
이
집

생
生

이기원 단상 에세이집

정여

312쪽 | 값 16,000원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토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못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태어날 생(生)이냐,
살아갈 생(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적), 목포(연산서적)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익산(동아서점)